◆ 교육칼럼 ◆

"어디 '꼴' 좀 봅시다"

우리는 멍한 사람들을 보면 '넋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라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었거나 경험해 보았을 것 같은 말이지요.

어느 책에서 보니 '얼굴' 이란 우리말의 의미는 '얼' 즉, 영혼이라는 뜻이고, '굴' 은 통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얼굴은 ''얼' 이 들어있는 굴(窟)' 또는 '' 얼' 이 들어오고 나가는 굴' 이라는 것이지요.

얼과 관련된 재미있는 말도 많습니다.

'얼간이' 는 '얼이 간 사람', '어른' 은 '얼이 큰 사람', '어린이' 는 '얼이 이른 사람', '어리석은 이' 는 '얼이 썩은 사람' 등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듯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 낯빛이 수시로 바뀌는 걸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이 제대로 박혀있는지, 빠져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어디가 불편한지…이렇듯 얼굴은 내 인격의 현주소가 됩니다.

얼굴은 오묘합니다.

비언어 의사소통 전문가인 폴 에크먼은 인간의 얼굴은 2개의 근육만으로도 300가지의 표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개로는 4,000가지, 5개의 근육을 서로 다르게 조합하면 자그마치 1만개 이상의 얼굴표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은 정직합니다.

얼굴의 표정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6초 정도 라고 합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모, 표정, 제스처가 90%, 목소리톤, 말하는 방법이 13%, 그리고 나머지 7%가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얼굴의 표정과 감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의 85%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말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건 8%에 그칩니다.

대화 상대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눈길이 서늘하면 '나를 경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요.

좋은 인상, 좋은 얼굴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은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특히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다양한 얼굴로 교육하고 학생들의 얼굴을 잘 읽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실에서 아침 햇살같은 밝은 웃음으로, 영혼이 살아 있는 얼굴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에 관심없던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부드러운 눈길, 따뜻한 미소로 밝게 인사하거나 격려해주면 가슴 속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질 겁니다.

짧은 순간,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얼굴 표정에서 서로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이 생길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유있게 유머를 날리며 밝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도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롯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고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새학년을 맞아 새로운 학생들과 새 틀로 짜여진 동학년 선생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또 다른 만남,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게 행복을 전해준 얼굴에 감사했던 것처럼 나도 새로 만나는 이에게 행복을 전하는 얼굴을 지닌 그런 교사로 새롭게 시작되는 2010학년도를 기다리면 어떨까요?

이기찬 인천 인수초등학교 교장

◆ 교육칼럼 ◆

아이들의 미래를 이끄는 '스승' 이 되기를

전 전남교육연수원장이 초·중등 교사 임용 합격자들에 부치는 글

각 시·도마다 초·중등 임용 시험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범대학들도 등록을 마친 상태로 초보·예비 선생님들이 기쁜 마음에 새 옷과 가방을 준비하고 있는 때이다.

그들에게 교사의 권위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다.

스승과 아버지와 왕의 지위가 같을 만큼 스승은 존중받았었다.

사람들은 그 학식을 존경했고, 그들의 품위를 본받으려 했으며, 그들의 바른 인격 앞에 고개를 숙였다.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비슷한 세 단어를 갖고 있다.

바로 교사와 선생, 스승이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그 뜻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세 단어의 뜻을 찾아보았다.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교사(敎師): 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先生):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선생을 높이는 말.

스승: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공통점은 '가르치는 사람' 이다. 교사는 자격을 기준으로 직업적인 개념이고, 선생은 가르치는 행위 자체,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 를 해 주는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교사인가, 선생인가, 스승인가?

또 우리의 인생에는 선생만 있었나 아니면 진정 나를 이끌어 주던 스승이 계셨나, 둘 다라면 선생이 많았을까 스승이 많았을까.

물음 끝에 생각해 본다.

지금 우리 학교에는 선생이 많을까 스승이 많을까?

벌써 20 년 전,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엔 한 선생님이 맡아야할 학생이 60명이 넘었다.

심한 학교는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야 할 만큼 교사 한 명이 '이끌어야' 할 학생들이 너무도 많았다.

지금은 불행 중 다행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내외로 감소하고, 게다가 지방으로 가면 온 학교를 털어 30명 남짓이다.

그렇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사 한 명이 '이끌어야' 할 학생 수는 줄어들었다.

그럼 그 때보다 스승은 더 많이 탄생했을까.

세월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세대가 변하고 있다.

콩나물시루처럼 빡빡하던 교실에서도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양 높이 보이던 그 시절의 아이들이 이제 현장의 교사가 되었고,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학부모가 되었다.

그 옛날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이라면 숨도 멈추라면 멈추었을 만큼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여고생, 학교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는 학부모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도대체 얼마나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없어졌기에 학생이 머리채를 잡고, 학부모가 폭행을 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누군가의 잘못으로 시작하고, 누군가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을 테지만, 오늘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른 생각을 해 본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 교권, 이 권위를 바로 세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생으로서 권위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스승의 길로 나아가 누군가의 인생에 빛을 보여줄 수 있을까?

먼저 교사로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가르치는 전문가' 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당근이나 채찍을 준비하기 전에 교사 본연의 자세로 교과 연구를 충실히 하고, 교수법 개발에 힘써 '교사' 의 정의를 실천해야한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선생에서 존경받는 '선생님' 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존경받을 것인가.

무책임한 권력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생을 높여 부르는 선생님은 아이들 보다 키가 커서 높이는 게 아니다.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들의 미래를 먼저 보고 멀리, 그리고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 그 아이의 내면이 보이고, 고민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들이 가야하는,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라.

그래서 집단의 학급이 아닌 개개의 학생을 이끌어 그들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교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교사 스스로 바로 서야한다.

교사가 스스로 올바른 교사상 정립을 위해 힘쓰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만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는 존경의 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

윤기선 (사)남도사랑나무 이사장

제37호 법률산책은 지면 관계로 쉽니다.

본 기고문 또는 교육 관련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본지 담당 기자(양원석 기자 yws@eduyonhap.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말!말!

예비 고3 A 양과의 대화

아침 7시에 기상해 기상 후 아침을 먹은 뒤 씻자마자 독서실 문 열 시간에 맞춰 독서실로 향하는 예비고3 A양(인화여고). 이제 수능을 260일 정도 남긴 예비 고3들의 생활과 심경을 알아보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예비 고3의 방학 하루 일과를 좀 알 수 있을까요?

A 방학 때 보통 아침 7-8시 사이에 일어나요. 독서실이 9시에 문을 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독서실을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데, 언어 수리 외국어 순으로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한 후 저녁시간대에는 학원을 가고요. 보통 12시까지 독서실에 있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면 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Q 이제 1주일만 되면 정말로 고 3이 되는데 걱정되거나 긴장되지는 않으세요?

A 네, 긴장되지는 않고 걱정은 많이 되요. 내가 하는 방식이 맞는걸까 고민되기도 하고, 가끔 공부가 안될 때에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할텐데 생각하면서 초조하기도 하구요. 걱정도 되다가 수능 끝나고 대학 갈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설레기도 해요.

Q 공부가 안될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A 다른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친구와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할 때도 있구요. 요새는 가고 싶은 대학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교 모습을 보거나 입학 정보를 보면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때도 있고요.

너무 안될 때에는 그냥 책을 덮고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들어요.

Q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앞으로 3학년 들어가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비 고3파이팅 입니다.

이상으로 예비고3인 여고생 A 양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같은 예비 고3으로써 상당히 공감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260일 정도 남은 수능을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한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예은 학생명예기자 (인천 인화여고 3)